

# “설 밥상 민심 잡아라”... 잠룡들 호남으로

### 심상정·유승민·박원순·이재명 줄줄이 광주행

### 반기문 17일, 문재인 22일, 안철수 방문 계획

### 강연·토론회·정당행사·토크 콘서트 등 광폭 행보

대선 후보 주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야권의 뒷날인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찾는다.

호남 민심이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아직까지 뚜렷하게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강연과 토론회, 정당행사, 토크 콘서트 등에 참석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호남 민심을 파고 들어간다.

특히 각 후보 진영은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이 고향에 찾아와 호남 민심이 누구를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잡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광주를 찾은 대권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5·18 묘지를 참배하고 곧바로 목포로 내려가 지역 기업인간담회, 시민초청 강연회에 나선다.

지역 언론인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일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19일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주를 찾는다.

새누리당 분당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호남에 알릴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강연이나 집회에 참석하며 이 지역을 찾았던 박 시장과 이 시장도 패널 토론

회에 처음으로 나선 만큼 정책과 비전 제시 등에서 어떤 차별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특히 17~18일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찾는다. 반 전 총장은 진도 팽목항과 해남, 영암을 거쳐 5·18 국립묘지 참배, 조선대 특강 등의 숨가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의 방문은 호남인들이 제3지대론과 빅텐트에 대해 아직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그 중심축으로서 첫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권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22일 광주를 찾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지지모임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한민국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문 전 대표와의 대화, 방송인 김제동의 간혹독소가 있을 예정이다.

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지난해부터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광주를 수시로 찾아 지역인사들과 만나며 접촉면을 크게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당도 당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총선에서 당의 기반이 되어 준 광주를 찾아 뒷발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15일 광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대선 전 빅뱅론과 개헌의 필요성을 실패하며 지역민심 선점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인 만큼 지난 대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크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하는 민심이 많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틈만 나면 호남을 찾아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른정당 인천시당 창당대회 16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인천시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며 한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성, 정병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주호영, 이종구 의원. /연합뉴스

## “정권교체 위해 대선후보 사퇴하는 일 없을 것”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6일 “과거처럼 정권교체를 위해 소수 정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춧불 광장, 춧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개혁 세력 중심의 연립 공동정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당에 무소속까지 첫 다당제 대선에서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선진 연합정치 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정의당은 단순한 정권 교체기 아닌 과감한 개혁정권 창출에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후보가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얻느냐가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규정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 또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바로미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결선투표제가 바람직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 2주일 내 결선투표제는 불가

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앞선 주자들의 코드에 맞춘 것으로 1주로 줄여서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반 전 총장은 국민이 직접해준 ‘유엔 사무총장 마일리지’를 대권 욕심에 낭비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며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심 대표는 “오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목포에서 지역 상공인 간담회와 시민 초청 강연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

## 박지원 대표 비서실장에 최경환·김명진 임명

### 최경환, DJ 마지막 비서관

### 김명진, 비서실장 5년 진기록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16일 대표 정부 비서실장에 초선인 최경환(57·광주 북구 을) 의원, 당무비서실장에 김명진(52) 전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학림사건 등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바 있는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박 대표와 가깝게 지냈다.

“동고동락 2세대”로 불리는 최 의원은 특히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DJ를 모시기 시작, 대통령 퇴임 후 영면할 때까지 1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 의원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객원교수를 지냈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명진 실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최경환 비서실장



김명진 비서실장

직인수위원회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공보·정무기획 행정관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3회,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1회 등 이번까지 모두 다섯 번의 대표·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진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김 실장은 14대 광주 남구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 국회, 청와대, 정당 등에서 20년 넘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국회 전문가다. /박지원기자 jkpark@

## 광주시, 中 사드 갈등 불구 청화대와 상생

### 자동차·문화예술 등 교류 확대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중국 청화대학이 자동차와 문화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 교류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를 방문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16일 청화대에서 초인쉬 청화대학 당서기를 만나 전방위적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청화대는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함께 문화창의산업, 예술·체육 분야 교류, 한국어 강좌 운영 등 교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디지털 창의산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시용청위 청화대 교수는 “광주시 문화산업 자문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청화대는 최근 개관한 예술박물관에서 광주 남종화 작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청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에 대해서도 광주시의 지원과 지원을 요청했다.

초인쉬 당서기는 “윤장현 시장을 청화대의 명예 동문으로 위촉해 광주와 청화대가 더욱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세미나, 포럼,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중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청화대 가족들의 해안이 광주시의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은 물론 한중 관계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소통 강화로 청렴도 회복”

### 도지사-민원인 직접 통화 제도화... 도정 신뢰 회복 추진

전남도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인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직접 통화를 제도화하는 등 도정의 신뢰 회복을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내놓았다. 과거 비리나 비위 행위에 대한 엄벌과 규제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남도는 16일 “지난해 청렴도 최하위에 그친 원인을 원점에서 점검한 결과 분석,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도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방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직원들 간 다양한 채널로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즐겁게 일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점

검과 예방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부서별 ‘수다 점심’, 부서 간 ‘함께 점심’, 민원인과 지사의 직접통화,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 이달의 ‘우수부서’ 표창, 우수 제안·고발 표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업무 우수사례, 청탁 대응방식, 세계의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무원 토론 중심 과정’을 신설하며,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진전도를 높이기 위해 불분명한 접수 내용 등을 사례로 엮어 현장감 있는 맞춤형 진찰·소통 교육을 실시한다. /윤현석기자chadol@

## 전남도, 국제수목화교류전에 北 작가 초청 추진

### 내년엔 수목화비엔날레 개최

전남도가 올 하반기 국제수목화 교류전을 개최하면서 수목화의 세계화에 나선다. 중국, 대만, 일본은 물론 북한 작가를 초청하고 작품 전시도 할 예정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류전에 이어 내년에는 정식 국제수목화 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2~31일(잠정) 목포 갯바위권과 유달산권, 진도 운림산방에서 국제수목화 교류전을 연다.

전남도 민선 6기 대표 프로젝트인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2018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의 사전 행사 격이다.

도비 10억원을 들여 3개 본전시, 4개 특별전시, 체험·교육·공연 등 모두 15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북한 작가의 참여와 작품 전시도 추진한다. 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 대표 작가 갤러리를 통한 것인지, 중국 연변의 큐레이터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초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7. 5. 3(수) ~ 5. 7(일)**  
**광한루원 일원**

**춘향제**

VISIT NAMWON CHUNHYANG FESTIVAL

주최·주관 | 제87회 춘향제전위원회

**제6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겨울·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기간(매주) \_ 16. 12. 24.(토) ~ 17. 02. 12.(일)  
장 소 \_ 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등산, 눈꽃등반  
주 관 \_ 운봉에향회(눈꽃축제위원회)  
후 원 \_ 남원시, 운봉읍 이장단·사회봉사단체  
\*남원시청으로 개정이 연기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063-635-0301)